

초접전 후보 24시 광주 서구청장



민주당 김선욱 서구청장 후보가 쌍촌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들에게 점심을 나눠주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무소속 전주연 서구청장 후보가 화정동 한 아파트 경로당에서 노인들의 손을 잡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새벽에 미화요원 만나 애로 청취

민주당 김선욱

민주당 김선욱 후보는 아침 5시부터 밤 12시까지의 강행군에도 좀처럼 웃음을 잃지 않았다.

여성으로서 체력적으로 힘이 들만도 하지만 이른 새벽 거리에서 만나는 유권자들에게 약속을 청하는 김 후보의 발걸음은 오히려 가벼워 보였다.

최근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가파른 지지율 상승이 김 후보에 활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주위 인사들의 전언이다.

김 후보는 26일 오전 5시, 매월동에서 일하고 있는 미화요원들을 찾아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것으로 유세 일정을 시작했다.

김 후보는 이어 풍암호수를 찾아 새벽운동에 나선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요청한 데 이어 7시에는 기아차 남포과 북문에서 명함을 배포하며 '광주 최초의 여성 구청장'을 만들어 줄 것을 호소했다.

오전 8시에는 광천동 기아차 서비스센터를 찾은 뒤 인근 기사식당에 들러 아침을 해결하는 한편, 서구 여론의 창구 역할을 하는 택시 기사들에게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9시에는 서구 노인복지관과 노인지회를 찾아,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정책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의 공약을 제시하며 '서구의 큰 버디'이자 큰 딸의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노인 복지관에서 만난 김모(72)씨는 "김 후보가 여성인데도 상당히 당찬 것 같다"며 "광주 최초의 여성 구청장으로서 제

사회복지관에서 노인 점심 배식 봉사 서구청 방문 공무원 피해 최소화 다짐 밤 늦게까지 음식점 돌며 지지 호소도

몫을 푹푹 할 것 같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10시에는 서구청을 방문한 김 후보는 공무원들과 만나 "서구청장이 되면 화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관공 선거에 연루된 공무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 박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후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 나선 김 후보는 "참여와 소통을 통한 생활 구정을 이루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11시에는 쌍촌동 시영아파트 앞 상가를 방문, "경기 참체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며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한 뒤 "서민의 아픔을 일일이 챙기겠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12시에는 노인사랑회에서 실시하는 무료 급식 행사에 참여한 김 후보는 직접 배식에 나서며 노년층과의 거리 좁히기에 나섰다.

오후 들어 김 후보의 발걸음은 더욱 바빠졌다.

1시에는 풍암동 신암초등학교 어머니 배구대회에 들른데 이어 곧바로 양동 서구 보건소를 방문, 공무원들과의 대화에 나섰다.

2시에는 여성 정치 네트워크 캠페인에 참석하고 3시에는 고엽제 지회를 방문, 현안 사항들을 청취했다.

특히, 김 후보는 오후 4시 매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방문한 자리에서 약취와 관련된 주민 민원과 관련, "주민들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을 구성한 뒤, 환경부 처원의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 매매단지에 등록업무 처리를 위한 현장 출장소를 설치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4시30분부터 치평동 현대아파트에서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 등 민주당 후보들과 합동 인사회에 나선 김 후보는 오후 6시부터 7시까지의 퇴근길 인사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저녁 8시, 영주동 사거리 인근의 음식점을 돌며 지지를 호소한 김 후보는 밤 10시부터 다시 금호지구 식당가를 방문해야 한 다며 "몸은 힘들지만 지를 믿고 지지하는 분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도 공고해지고 있어 신바람이 난다"며 종종 걸음으로 달려갔다.

11시 서구 노인복지관을 방문한, 김 후보는 노인들과 반가운 악수를 나눴다.

저녁 먹자골목 돌며 악수 공세

무소속 전주연

26일 오전 7시 광주시 서구 상무역 앞. 무소속 전주연 후보는 연신 허리를 숙여 가며 오가는 출근길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일부 유권자들의 "힘 내세요"라는 말에 악수를 청하는 전주연 후보의 손에는 더욱 힘이 들어갔다.

상무역 방문 이전에 경로당 모임에 참석했다는 전주연 후보는 "지난 4년 동안 후회 없이 일을 했다"며 "결국 서구민이 현명한 선택에 나설 것"이라고 밝은 표정을 지었다.

1시간 동안의 출근길 인사를 마친 전주연 후보는 곧바로 무각사로 이동, 스님들과 초파일 자원 봉사자들을 만나 무소속 후보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얘기하고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10시 서구청 각 실국을 방문, 함께 근무했던 공무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하며 지지를 호소한 전주연 후보는 "최근 관공선거 논란으로 어수선하지만 서구청 공무원들은 내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 후보는 특히, "서구청이 지난 4년 동안 대통령상을 4회나 수상하고 메니페스토 경진대회 2년 연속 최우수상을 거머쥔 배경에는 서구청 공무원들의 탐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일각에서 관공선거 시비와 관련, 각종 흑색선전에 나서며 서구청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11시 서구 노인복지관을 방문한, 전주연 후보는 노인들과 반가운 악수를 나눴다.

초등학교 배구 동호회 참석 한표 호소 경로당 찾아 "노년층 환경조성 하겠다" 퇴근길 아파트 상가 누비며 지지 부탁

전 후보가 서구청장 재임 당시 건립된 노인복지관은 하루 1000명에 이르는 노인들이 이용하는 등 상당한 호응이 좋다.

점심시간 동안 개인 일정을 소화한 전주연 후보는 다시 한국 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전 후보는 "노년층은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약자"라며 "서구청장에 재선된다면 보다 노년층을 위한 보다 쾌적한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설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후 1시30분,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 나선 전주연 후보는 "당 보다는 인물을, 정치하는 사람보다는 행정을 아는 사람을 선택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주연 후보는 "거대 정당과 외롭고 힘든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비상시국에 서구청장 후보 동행을 맡아 뛰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감사하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이어 주월 초등학교 등 배구 동호인 모임에 참석한 전주연 후보는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건강한 지방자치의 초석"이라며 지방자치와 행정의 전문가를 서구청장으로 선택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전주연 후보는 월남전 고엽제 피해자 총회에 참석해 각종 요구사항을 일일이 청취했다.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퇴근길 인사에 나선 전주연 후보는 지친 기색도 없이 바로 인근 상가를 돌면서 지지를 부탁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작은 상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최모(54)씨는 여러 말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이 서구청장을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특히, 무소속으로 나서 고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짝하다"고 말했다.

저녁 8시 유권자들이 많이 몰리는 금호지구 먹자골목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전주연 후보는 힘들지 않는다는 질문에 "육체적인 고통은 참을 수 있지만 민주당 등 정치권 인사들이 퍼뜨리고 있는 각종 흑색선전은 정말 참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 후보는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제와 관련, "일부 후보 진영에서는 노골적으로 재선거를 운운하고 있어 기가 막힌다"며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이며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핫코너

한화갑 "조급하게 평민당 만든 것 부적절"

평화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26일 당의 진보에 대해 "조급하게 정당을 만든 것이 부적절했다"며 "소수정당과 연대와 통합 등 중대결단을 통해 활로를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분명한 것은 지금 민주당은 당면한 보편 김대중 전 대통령을 계승한 것으로 비치지만, 사실상 열린우리당이며, 공천과정에서도 과거 민주당 사람들 상당수를 배척했다"며 "지역 정서를 대변할 정치세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무소속 황주홍 강



진군수와 이민준 나주시지역 전남도의원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를 했다.

한 대표 측은 "민주당과 경합을 벌이는 두 후보 측에서 지원 요청이 와 한 대표가 해당 지역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북풍논란에 대해 "남북이 대결 방향으로 가지 않아야 한다"며 "이런 때일수록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경택 "22개 시군 교육장 공모제 도입"

김경택 전남도교육감 후보는 26일 "교육비리 청산을 위해 전남 22개 시·군 교육장 공모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그동안 시·군 교육장 인사때마다 '나눠주기' '촉진 행기' 등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교육현장에서 평생을 헌신해온 많은 교사들이 잘못된 인사관행 때문에 좌절하는 등 폐단이 많았던 만큼 교육장 공모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그동안 교육장 공모제를 시행했던 일부 지역에서 사전내정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한 만큼 투명한 공모와 평가시스템을 통해 모든 교육자가 인정하는 공모제로 정착시켜겠다"고 덧붙였다.



임택, 주민자치센터 복지센터로 확장

국민참여당 임택 대구구청장 후보는 26일 서비스 행정 차원에 머물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거점별 주민 밀착형 복지서비스 센터로 그 기능을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주민자치센터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실현에 적합한 인프라"라며 "이러한 특성을 잘 살려 훌륭한 주민밀착형 복지서비스 센터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이를 위해 "각 주민 센터에 복지 전담 공무원을 파견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교육과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동 복지상담실 운영하여 질병·근로·주거·소득 관련 복지혜택 상담 등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전완준 "군청내 직장 보육시설 만들것"

전완준 무소속 화순군수 후보는 26일 "군청 내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직원들의 복지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사내 위생시설이 완비된 영·유아방을 마련하고 보육교사를 배치하는 등 직원들이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직장 조성에 힘쓰겠다"면서 "신명나는 근무환경을 만들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재홍 "양해령 사과 않으면 법적 대응"

손재홍 민주당 광주시의원(동구 2선거구) 후보는 "양해령 후보가 명백한 허위사실에 대해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양 후보가 박주선 국회의원과 논의를 선거구를 옮겨 무소속으로 출마했다는 주장에 박 의원에게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민주당 경선에 탈락, 출마할 수 없는데도 경선에 불복하고 민주당을 탈당한 뒤 선거구를 옮겨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개인욕심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병조 "후보 비판보다 격려하는 문화 조성"

이병조 무소속 광주시의원(남구 제2선거구) 후보는 26일 "메니페스토 정신은 온데 간데없고 정당의 그늘에 숨어서 당선되려는 비도덕적인 후보들을 보면서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면서 "앞으로 남은 선거기간 동안 상대후보 비판 보다는 격려와 찬사를 보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선거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재 불법 광고물 수거하며 지지 호소

이창재 광주 기초의원(북구 바선거구) 후보는 26일 운암동·동림동 일대 불법 음란 광고물을 수거하면서 만난 지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매 일 수천장씩 뿌려지는 불법 음란 광고물을 수거하면서 만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지를 당부했다.



전남도 선관위 "투표하면 기념배지 준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지방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에게 기념 배지를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선관위는 우선, 배지 1만개를 제작해 일명 '제로백 운동'을 벌이는 장흥군 유권자에 한해 나눠줄 계획이다.

/최권일·박진표 기자 cki@kwangju.co.kr

김대식 '큰 인물론' 내세워 고향 표심 자극

한나라당 김대식 전남지사 후보는 26일 고향인 영광 유세를 통해 집권당 내 '큰 인물'로 키워줄 것을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영광읍 터미널 앞 시장 유세에서 "정부와 여당 안에도 호남출신의 큰 인물이 필요하다"며 "전남도민이 그 인물을 이번 선거를 통해 만들어 내야 한다"고 고향 표심을 자극했다.

그는 "대통령의 신임을 얻고



있는 김대식이 전남에서 30% 이상의 득표내 올리면 여론 내 대표적인 인물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호남의 예산확보나 현안사업 해결, 호남 인재 수혈에도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